



91

조선소 용접 및 가우징 작업자에게 발생한 피부백반증

성별	남	나이	50세	직종	용접 및 가우징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---	-------	----

1 개요

최○○은 1982년 선박건조업체인 P사에 입사하여 용접작업 및 도장된 부위의 가우징작업을 주로 하였다. 1990년 초 우측 허벅지에 피부 탈색반점이 발생하였으며, 매년 확산되어 몸 전체 부위로 번져 1999.12. 피부백반증으로 진단 받았다.

2 작업환경

최○○은 탑재 1부에서 용접, 가우징, 사상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, 입사 초기에는 용접업무를, 1985년부터는 가우징 작업을 하였다. 작업장소는 탱크내부, 배 외관 등에서 하였는데, 특히 탱크내부의 작업시는 가스와 분진의 발생이 심하였다고 하였으며, 방진마스크는 최근 10년경부터 착용하였다. 용접과 가우징 작업은 도장이 된 철 구조물에 실시하는데, 작업 공간이 좁은 경우가 많았고, 작업 후 상지는 자주 씻지만 하지는 씻기가 어려웠다고 하였다.

3 의학적 소견

최○○은 과거력상 피부질환이 없었고, 당뇨병, 갑상선질환 등의 내분비질환이나 면역저하 관련질환이 없었으나, 1977년 특수검진상 피부백반으로 기술되어 있었다. 가족 중에도 백반증을 포함한 피부질환력이 없었다. 1990년 초에 우측 허벅지 부위에

직경 3-4cm의 탈색반점이 발생하였으며, 이때부터 우려할 정도로 다른 부위로 점점 확대되었다고 하였다. 군제대후 컨테이너 용접작업을 3년 하였으며, 1982년에 P사에 입사하였다.

4 결 론

최○○의 피부백반증은

- ① 탑재 1부에 근무 중 도장된 철구조물을 용접하면서 도료 열분해산물과 분진, 주변 도장작업에 의한 도료 등에 노출되었고,
- ② 선박건조업에서 도장된 철구조물을 용접할 경우, 에폭시계 도료 등에서 직업성 백반증 유발물질인 페놀류가 흔히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, 이 물질에 공기중으로 노출되거나 피부접촉시 백반증이 발생된다고 보고되며,
- ③ 입사 전부터 탈색반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, 1990년부터 크기가 증가되고 부위가 확장된 백반증은 과거 탈색반과 무관하게 작업중 노출된 백반증 유발물질에 의해 새로 발생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,
- ④ 피부탈색반점이 허리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에는 악화되지 않았으나, 다시 작업 복귀시에는 악화되어 작업과 질병 악화의 관련성을 보이고,
- ⑤ 산업의학과의 검사 결과, 일광에 의한 피부질환, 화상 등의 경력이 없으며, 현재, 유전질환, 면역질환, 당뇨병, 갑성선질환 등의 내분비 질환 등 백반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 없었으므로, 페놀화합물 노출과 관련된 직업성 질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.